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37호 현대불교  
2009년 6월 24일(음력 윤5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내 부모 내가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생각해 줍니까

이게 다 우리 부모의 잘못일까?

☞ 저는 맞벌이를 하며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잘해 준다고 하는데 녀석은 뭐가 부족한지 공부도 안 하고 바깥으로 돌기만 합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식이 그러는 게 다 우리 부모의 잘못일까?

☞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려면 부부가 잘 생각하셔야 하고, 또 자식한테 효도는 받지 못할지언정 잘 살아서 마음이 편해지려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는 거는 은소반에 받들고 금소반에 받들고 뭐 돈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잘해 드린다고 해서 행복하게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자식들이 요만큼만 말을 부드럽게 해 줘도 좋아합니다. 또 돈이 얼마 안 들어도 요만한 걸 하나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잡섬 보세요" 한다면 그게 별 돈이 안 들어갔어도, 그리고 자기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요즘은 보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갔다가 저녁에 올 때에 떡집에서 떡 하나만 사면 돼요. 케익 사듯이 그렇게 떡을 사고 꽃 한 송이만 사면 되고요. 물 한 그릇만 떠 놓으시면 되고요. 초 그것만 켜 놓으면, 그리고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위패를 써서 놓고요. 위패를 써 놓지 않는다면 영혼이 접할 데가 없습니다. 꽃도 그래서 해 놓는 겁니다. 어디다가 응접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접을 하고 '야, 너희들이 그래도 나 죽은 날을 그래도 생각해서 이렇게 식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착하구나 착해' 하고 선 그저 어떡하든지 잘되게 하느라고 금금 매는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일을 다니니까 못한다. 뭐 음식을 많이 차려 놓아야 하니까 못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애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그게 한몫 하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부모를 갖다가 지게에다 썰다가 버려려고 지고 가는데 아들이 따라 오거든요. 따라오지 말고 그래도 따라가요. 그런데 왜 할머니를 그렇게 내버리고 가느냐고 하니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쳐 놓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갖다 버리라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다가 따지를 못하니까 어머니 갖다 버린 지계를 다시 지고 내려와요. "그 지계는 뭘 하느냐, 이제 다 썼는데" 하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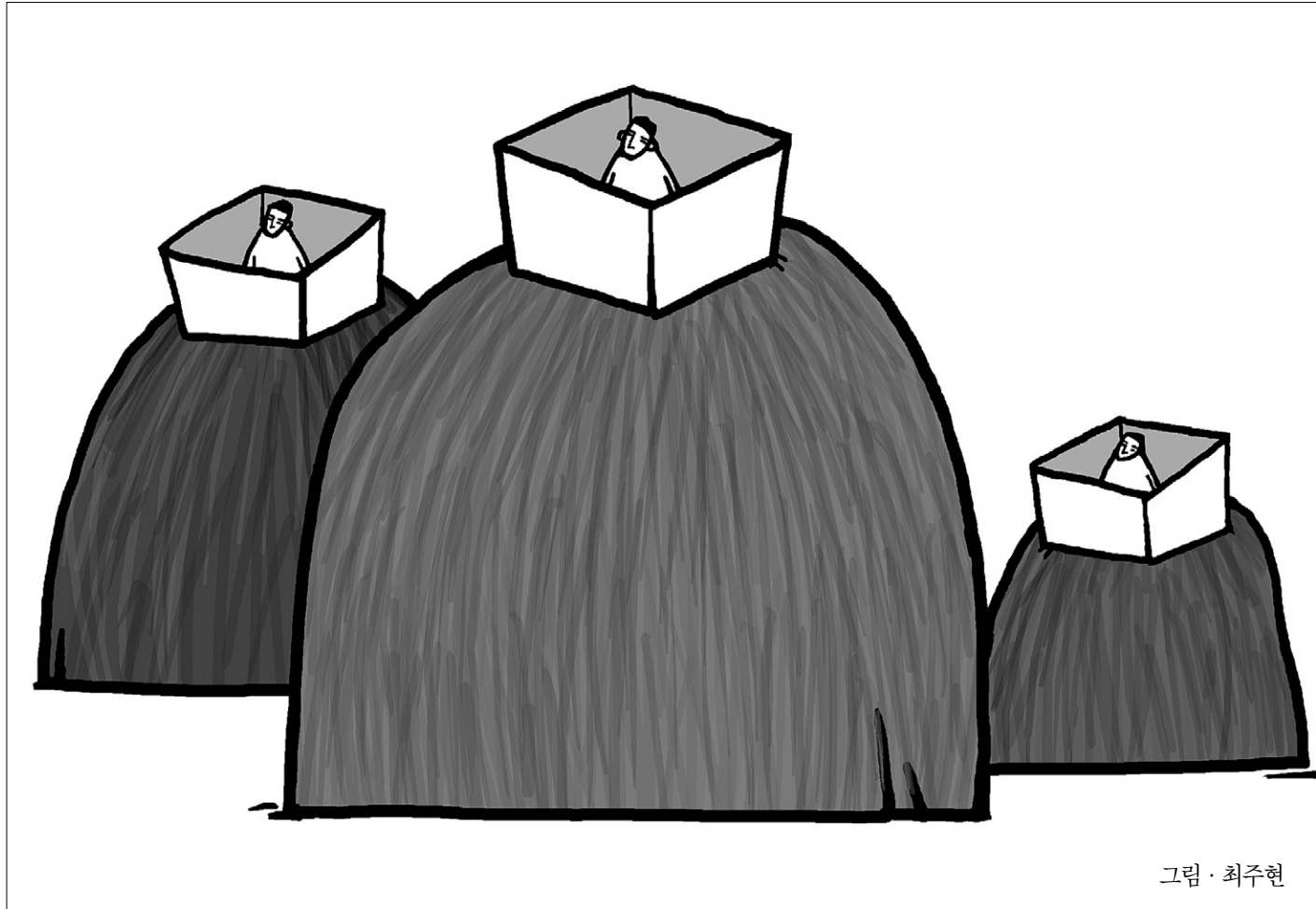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다 버려야 될 거 아니냐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선 지계를 달라고 그래선 자기 어머니를 도로 모시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부모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내 부모가 생각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복을 받고 마음에 따라서 흥겹고 또 고가 없어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마음은 항상 공심으로서 공생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진리를 따라서 사시게 된다면 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는 끝에 한 번 더 말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찌 고가 없겠습니까. 괴로움도 있을 거고, 지금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스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신계가 이 물질계를 움직여주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게 오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의 영원한 근본 자체가, 자기가 없어지면 육신은 그냥 송장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송장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등 동물인 사람이 돼 가지고도 진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성이라는 이 주인공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자식이 영 안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요. 왜 자식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나가서 자기 공부도 안 하는지 그렇게 하는 이치가 여러 가지 각색이죠. 그런 건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하고 아무리 때리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외려 더 달아나죠. 그러나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추

운 데 나갔다 왔으면 "애, 너 얼마나 춤니? 밥은 먹고 다니니? 난 무척 걱정했다" 그리고 나가서 일할 때면 하다못해 냉장고 바깥에라도 그렇게 써서 딱 붙여 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요량이에요. 그리고 또 관하세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나의 주인공과 너와 풀이 아닌데 너만이 모두 잘 이끌어줄 수 있잖아.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아들의 길이 갑갑하다면 헤쳐 줄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간절히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은 좋은 자식으로 잘 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바로 과거로부터 어떻게 부모가 살아 왔으며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아온 영이 자기한테서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금은 금대로 금방에 있을 거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방에 있을

거고 이렇게요. 끼리끼리, 배는 배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잘못도 있고 자식의 잘못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가 잘못 안되게 등급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집에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좀더 능동적인 지혜로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나 말 자세 그런 것이 꼭 필요해요. 이런 내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은 내 거니까 내가 꼭 필요한 존재고, 내가 꼭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면서 놀러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마음으로도 그냥 딱 묶어서 요렇게 해서 항아리 속에다가 딱 넣어 놓고는 이렇게 한다면 넣어 놓은 사람도 그걸 지키느라고 꼼짝 못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이거는 산 지옥이지 그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게, 그렇다고 해서 다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고, 가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 안에서 어디로 가질 못해요. 전부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서나마 좀 활력성 있게, 마음이 좁지 않게 지혜롭게 나가 가끔 개선해 주는 게 어머니나 부인이나 또는 아버지나 남편이 서로서로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팔자 운명일까?

☞ 저는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았습니다. 셋방살이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중풍에 걸려 앓을 먹입니다. 이 모든 게 팔자 운명일까?

☞ 팔자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두 내 몸 속에 다 있어요. 팔자 운명,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이게 이 몸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들어 있는지 불가요?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로 인해 몸통은 받지만,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영혼들이 전부 자기한테 인과로 묶여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지금 몸통이 속에서 우굴우굴 우굴우굴 하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저지르려면 남을 시켜 가지고, 남편한테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딪히게 만들고, 또 자식한테 들어가서 자식으로 인해

26면으로 계속

##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 용

범 패 : 거불/복청계/가영/향수나열/도량계/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교수\_보암 스님  
전문강사\_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 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기간 : 1년

교육내용

범 패 : 거불/복청계/가영/향수나열/도량계/다계작법/39위/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법고/북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개강일 : 양력 7월 14일 (화) 오후 2시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4시간)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동동 44번지 / 불광사

팔공IC에서 3분거리

문의 및 상담전화

불광사 053)986-1080  
011-9361-5566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집합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중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함판 사진 3장

◆ 입중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연락바랍니다.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